교회문헌『모든형제들(FRATELLI TUTTI)』기반

대전교구 해외지원
정체성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든형제들
(FRATELLI
TUTTI)

일 시 2021.11.3. (수) 15:00~17:00

장 소 대전교구청 세종청사 1층 명례방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교회문헌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기반
대전교구 해외지원 정체성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1.3.(수) 15:00~17:00
❍ **장　　소** : 대전교구청 세종청사 1층 명례방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반곡동))
❍ **발　　제**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이문동 본당 주임,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영문판 번역)
❍ **좌　　장** : 노승환 요셉 신부 (대전교구 사회복지국장)
❍ **토　　론** : 박진솔 아녜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팀장)
조수정 데레사 (대전교구 사회복지분과협의회 회장)
홍정수 베드로 신부 (몽골 항올 해외선교)
김영나 효주아녜스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동티모르 해외선교)
윤영중 필립보 신부 (대전교구 성소국장/본부 운영위원)
❍ **주　　관** :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 **주　　최** : 대전교구 사회복지국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4:50~15:00	참석자 등록	
15:00~15:05	시작기도, 개회 및 인사말	Fr. 권지훈 베드로
15:05~15:10	격려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주교
15:10~15:20	세션1. 대전교구 해외지원 어제와 오늘 '본부와 본당 및 수도회의 해외지원 현황 중심으로'	임미선 아델라
15:20~15:50	세션2. 대전교구 국제협력 정체성과 방향을 논하다. 【발제】 문헌『모든형제들(Fratelli Tutti)』에 기반한 대전교구 국제협력의 정체성과 방향	Fr. 박동호 안드레아
15:50~16:00	휴식 및 자리배치	
16:00~16:50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노승환 요셉 신부 1. 국제협력의 동향 및 선도적 국제협력의 방향 2. 본당 해외지원 확장과 교구와의 연대 가능성 3.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Ⅰ 4.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Ⅱ 5. 국제협력에 관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역할	 1. 박진솔 아녜스 팀장 2. 조수정 데레사 회장 3. 홍정수 베드로 신부 4. 김영나 효주아녜스 수녀 5. 윤영중 필립보 신부
16:50~17:00	마침기도	

목차

세션.1 07

대전교구 해외지원 어제와 오늘 '본부와 본당 및 수도회 해외지원 현황 중심으로'

임미선 아델라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국제협력사업 담당)

세션.2 발제문 29

대전교구 국제협력 정체성과 방향을 논하다.

교회 문헌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에 기반한 대전교구 국제협력의 정체성과 방향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이문동본당 주임,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영문판 번역)

토론문 41

국제협력의 동향 및 선도적 국제협력의 방향 43

박진솔 아네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팀장)

본당 해외지원 확장과 교구와의 연대 가능성 49

조수정 데레사

(대전교구 사회복지분과협의회 회장)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Ⅰ 52

홍정수 베드로 신부

(몽골 항올 해외선교)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Ⅱ 55

김영나 효주아네스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동티모르 해외선교)

국제협력에 관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역할 58

윤영중 필립보 신부

(대전교구 성소국장/본부 운영위원)

모든형제들
(FRATELLI
TUTTI)

1 세 션

대전교구 해외지원 어제와 오늘 ‘본부와 본당 및 수도회 해외지원 현황 중심으로’

임미선 아델라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국제협력사업 담당)

1 세 션

대전교구 해외지원 어제와 오늘

'본부와 본당 및 수도회 해외지원 현황 중심으로'

임미선 아델라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국제협력사업 담당)

Ⅰ. 본부 국제협력(해외지원) 어제와 오늘

1. 연도별 지원 내역 (2010~2021)

- 연도별 상세 지원 내역은 **첨부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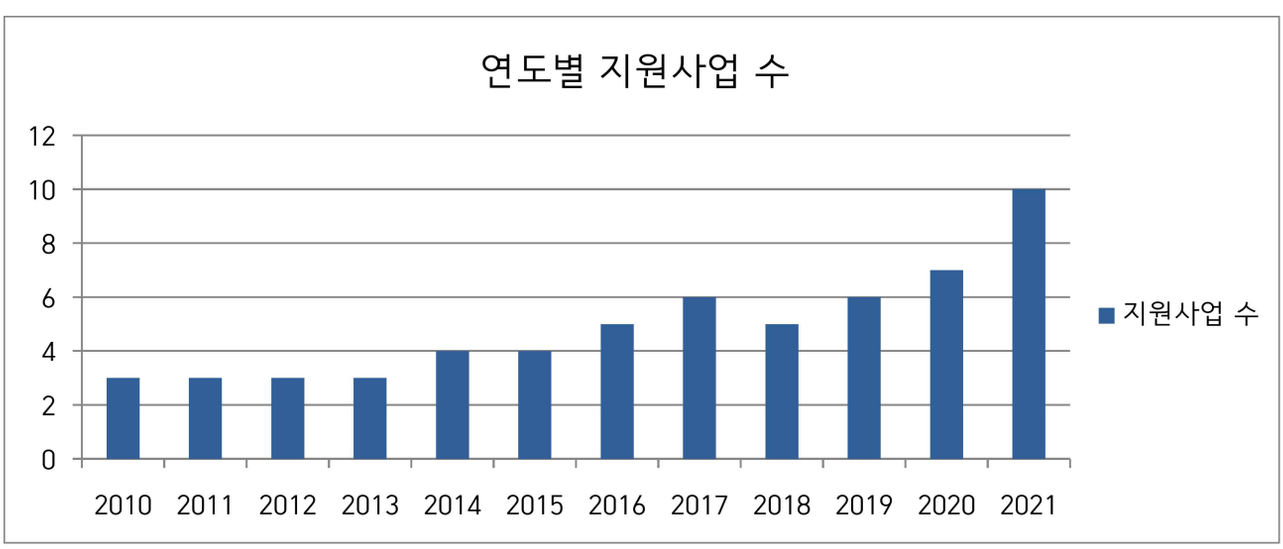
표1. 본부 국제협력 총괄표

사업기간	2010~2021년
지원 사업 수	57개 사업
지원금 총액	1,422,703,291원
지원금 최소금액	999,990원
지원금 최대금액	60,000,000원
사업 당 지원금 평균	24,529,36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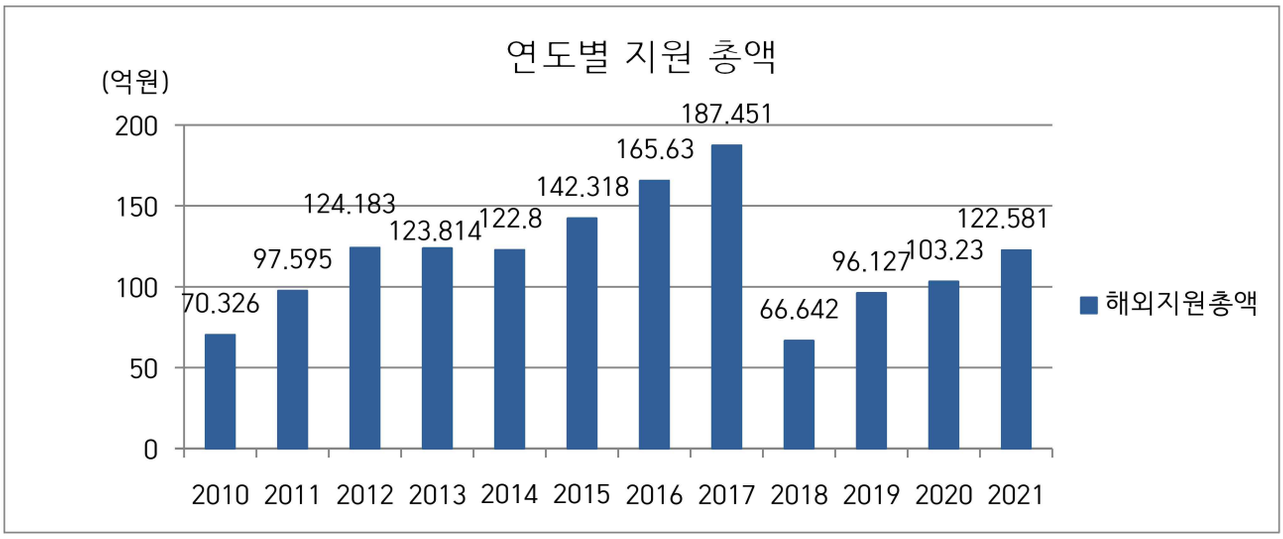
❍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2010~2021년 기간 동안 국제협력(해외지원) 사업으로 57개 사업에 총 14억 2,270만 3,291원을 지원하였다. 연평균 해외지원 금액은 약 1억 1천 8백여만원이었다. 지원금 최대 금액은 2017년 몽골 항올 성모승천본당과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에 각각 6,000만원이며, 지원금 최소 금액은 2014년 대화동성당에서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에 지정 기부한 999,990원이었다. 한 사업 당 평균 지원금액은 2,452만원 정도였다.

표2. 연도별 지원 내역

사업연도	지원사업 수	지원금 총액(원)	
2010	3	70,326,032	5.0(%)
2011	3	97,595,750	7.0(%)
2012	3	124,183,250	8.7(%)
2013	3	123,814,039	8.7(%)
2014	4	122,800,990	8.6(%)
2015	4	142,318,048	10.0(%)
2016	5	165,630,982	11.6(%)
2017	6	187,451,850	13.1(%)
2018	5	66,642,400	4.8(%)
2019	6	96,127,227	6.7(%)
2020	6	103,230,984	7.2(%)
2021	9	122,581,739	8.6(%)
합계	57	1,422,703,291	100.0(%)



❍ 2010년 대전교구에서 파견한 해외선교지(몽골,에콰도르) 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심의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 국가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보다 '교회 안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원한 사업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 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지원금이 약 1억 8천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규모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대폭 줄었으나 2020년 다시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 사업별 지원내역(2010~2021)

표1. 사업분야별 지원지역(국가)/기관(2010~2021)

사업 내용	국가/기관
식료품 및 무료급식	몽골 항올, 몽골 바양허쇼, 에콰도르, 인도, 우간다, 케냐, 캄보디아, 파키스탄
교육	몽골항올, 몽골 바양허쇼, 동티모르, 파키스탄, 우간다, 케냐, 남수단, 잠비아
의료·보건·위생	몽골항올, 우간다, 케냐
기타 사업 지원	시리아 난민 지원 (HELP SYRIA)

❍ 본부가 지원한 사업분야 중, 식료품 및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한 지역(국가)는 몽골항올, 몽골 바양허쇼, 에콰도르, 인도, 우간다, 케냐, 캄보디아, 파키스탄 8개국이며, 교육 사업을 진행한 지역(국가)는 몽골항올,몽골 바양허쇼, 동티모르, 파키스탄, 우간다, 케냐, 남수단, 잠비아 8개국이었으며, 보건·위생 사업을 진행한 지역(국가)는 몽골항올, 우간다, 케냐 3개국이었다. 그 밖에 기타 지원한 사업으로는 시리아 난민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다.

표2. 사업 규모별 지원 현황(2010~2021)

	사업 수	총액
500만원 미만	5 (8.8%)	14,031,190 (1%)
500만원~1,500만원 미만	18 (31.6%)	206,584,928 (14.5%)
1,500만원~3,000만원 미만	16 (28.0%)	386,045,799 (27.1%)
3,000만원 이상	18 (31.6%)	816,041,374 (57.4%)
합계	57 (100%)	1,422,703,291 (100%)

❍ 본부의 해외지원 사업 지원 규모별 현황에서는 3,000만원이상 지원한 사업이 18개(31.6%) 사업으로 전체 지원액의 57.4%인 8억 1천만원 정도였다. 1,500~3,000만원 미만 지원 사업은 16개(28.0%)로 전체 지원액의 27.1%인 3억 8천만원 정도였다. 500~1,500만원 미만 지원사업은 18개(31.6%)로 전체 지원액의 14.5%인 2억 6백만원정도였다. 500만원 미만 지원한 사업은 5개(8.8%)로 전체 지원액의 1%인 1천 4백만원 정도였다.

3. 지역별 지원 내역 (2010~2021)

표1. 지원지역 별 사업 현황(2010~2021)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합계
38개 사업(66.7%)	10개 사업(17.5%)	9개 사업(15.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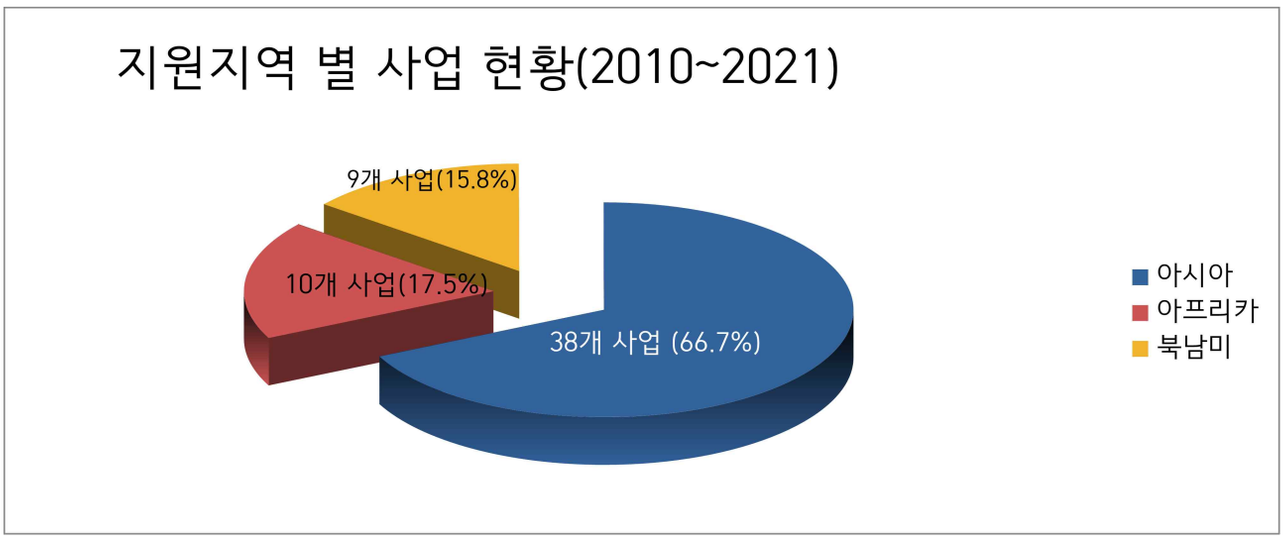


표2. 대륙-연도별 사업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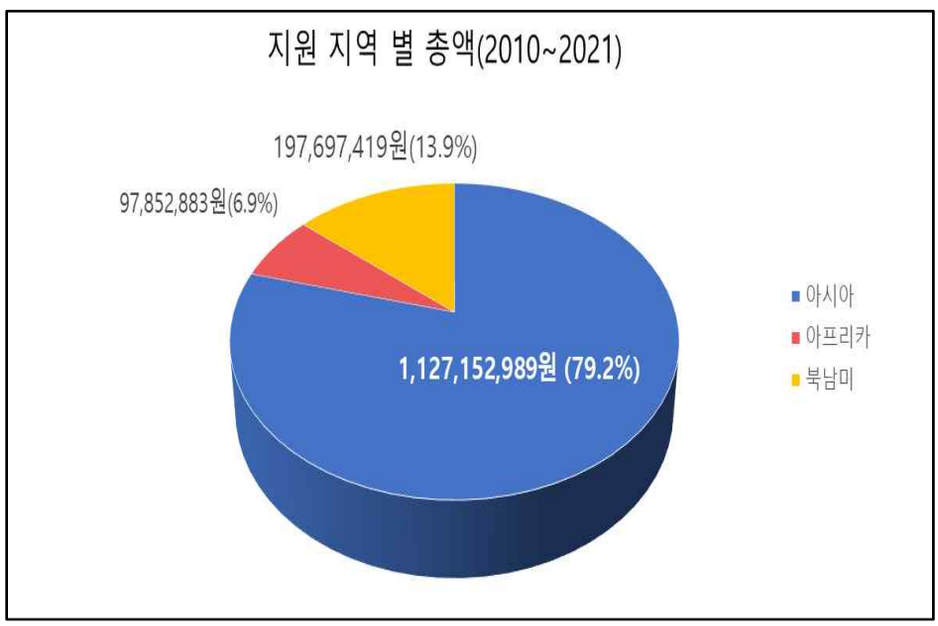
사업연도	대륙			합계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2010	2	0	1	3
2011	2	0	1	3
2012	2	0	1	3
2013	2	0	1	3
2014	2	0	2	4
2015	3	0	1	4
2016	3	1	1	5
2017	4	1	1	6
2018	3	2	0	5
2019	4	2	0	6
2020	4	2	0	6
2021	7	2	0	9
합계	38	10	9	57

표3. 대륙별 지원 국가 및 지역 분류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합계
몽골 항올, 몽골 바양허쇼, 인도, 시리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우간다, 남수단, 잠비아,	에콰도르	13

표4. 지원지역 별 총액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합계
1,127,152,989원 (79.2%)	97,852,883원(6.9%)	197,697,419원(13.9%)	1,422,703,291원(100%)



❍ 본부가 2010년~2021년까지 지원한 사업의 수는 57개이며, 지원 국가의 수는 13개국이다. 이 중, 표1. 지원지역 별 사업 현황(2010~2021)과 표4. 지원지역 별 총액을 살펴보면 본부의 해외지원은 주로 아시아 (38개 사업(79.2%) 및 1,127,152,989원)에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남미(9개 사업(13.9%) 및 197,697,419원), 아프리카(10개 사업(6.9%) 및 97,852,883원) 순이었다.

Ⅱ. 본당 연계 지원 사례

	지원연도	지원 본당	지원국가(지역) 및 내용	지원금액
1	2014	대화동 성당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정 기탁	999,990원
2	2016	노은동 성당	남수단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마을 학교 100개짓기 프로젝트 지원	4,000,000원
3	2020	천안 불당동 성당	캄보디아 뽀이뻿 돈보스코센터 초등학생 무료급식 매칭 지원	천안불당동성당 10,000,000원 본부 10,000,000원
4	2021	세종 성 요한 성당	동티모르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유치원 건립 매칭 지원	세종성요한성당 20,000,000원 본부 10,000,000원
5	2021	세종 성 요한 성당	몽골 항올 주교좌 성당 영상 장비 구입비 지정 기탁	12,810,000원
6	2021	세종 성 요한 성당	잠비아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웨지교구 성도미니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지정 기탁	14,800,000원

※ 매칭지원[1] 사례 (2020~2021)

1) 천안 불당동 성당 & 본부 (왼쪽, 캄보디아 뽀이뻿 돈보스코센터 초등학생 무료급식 매칭 지원)
2) 세종 성요한성당 & 본부 (오른쪽, 동티모르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유치원 건립 매칭 지원)

1) 본당에서 본부의 국제협력(해외지원)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본부와 함께 지원

Ⅲ. 대전교구 본당 및 수도회의 해외지원 자료 조사

1. 대전교구 해외지원 자료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의의

본 자료는 대전교구 해외지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부가 대전교구 해외지원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교구 내 본당 및 수도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선도적 해외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 및 의의를 갖는다.

나. 조사 대상

대전교구 전체 본당 및 9개 수도회

- 본　당 : 대흥동 본당 외 144개
- 수도회 : 거룩한말씀의회,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살레시오수도회, 예수수도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꼰솔라타선교수도회

다. 조사 일정

- 2021년 9월 10일(금) : 교구 그룹웨어 대전교구 해외지원 자료조사 공문 발송
- 2021년 9월 10일(금) ~ 9월 30일 (목) : 작성지 접수 (공문없이 본부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접수)
- 2021년 10월 : 자료 수집 및 정리

라. 조사의 한계

진행된 조사에서는 대전교구 전체 본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145개 본당 중 작성지 제출 본당은 40곳 정도로 회수율이 27.6%에 그쳤다. 본부가 교구 내 해외지원에 관한 조사를 최초로 시도하였고, 본부의 해외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당의 해외지원 조사 자료는 정확한 현황자료로서의 의미보다는 교구 내 본부 사업의 홍보 및 인식확장과 해외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여러 본당 및 수도회와의 관계(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데 의미를 두었다.

※ 본 조사에서는 해외지원사업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식량, 의료 · 보건 · 위생, 교육, 복지, 긴급구호 및 공동체 발전, 해외교회에 대한 사목적 지원(성소자 양성, 교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포함하였다.

2. 대전교구 해외지원 현황 작성지 제출 본당 및 수도회의 해외지원 경험 유무

번호	본당명	지원경험 유무
1	세종 도원 성당	없음
2	천안 봉명동 성당	없음
3	노은동 성당	○
4	천안 불당동 성당	○
5	관평동 성당	○
6	반석동 성당	○
7	장항 성당	없음
8	도안동 성당	없음
9	기지시 성당	없음
10	선화동 성당	없음
11	홍북 성당	없음
12	변동 성당	없음
13	정림동 성당	없음
14	운산 성당	없음
15	서천 성당	없음
16	문창동 성당	없음
17	논산 부창동 성당	없음
18	배방 성당	없음
19	용전동 성당	없음
20	옥계동 성당	없음
21	진잠 성당	없음
22	대동 성당	없음
23	웅천 성당	○
24	유성 성당	없음
25	내동 성당	○
26	천안 원성동 성당	없음
27	복수동 성당	없음
28	판암동 성당	○
29	청양 성당	없음
30	천안 신방동 성당	○
31	하기동 성당	○
32	자양동 성당	○
33	공주 중동 성당	없음
34	세종 성 요한 성당	○
35	강경 성당	없음
36	살레시오회(정림동 공동체)	없음
37	거룩한 말씀의 회	○
38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
39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
40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 작성지 제출 본당 및 수도회 총 40개 (본당 35곳, 수도회 5곳) 중, 해외지원 경험이 있는 본당은 11곳, 수도회 4곳 총 15곳으로 나타났다.

3. 대전교구 본당 및 수도회 해외지원 현황

❍ 본당 및 수도회: 본당 11곳, 수도회 4곳 / 총 15곳

번호	본당	지원 국가 및 단체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및 횟수	지원 경로
1	노은동	①카자흐스탄 신학교 ②동티모르 한국순교복자수녀회 ③미얀마 마리아내 성모성심 수녀회 ④시리아	①카자흐스탄 신학교 재정 보조 ②동티모르 이동도서관 도서 지원 ③미얀마 난민 구제비 지원 ④시리아 난민 구제비 지원	①카자흐스탄 약 30,000,000원 (매 년 1만불씩 3년간) ②동티모르 16,000,000원(1회) ③미얀마 10,000,000원(1회) ④시리아 약 7,200,000만원 (매 달 10만원, 약 6년) 합계: 약 63,200,000원	대주교님, 수녀회의 요청 혹은 예전 사회복지분과 장님을 통해
2	천안 불당동	①에디오피아 (살레시오 여자수도회), ②볼리비아 ③캄보디아 (살레시오 뽀이뻿 돈보스코센터)	①에디오피아 아이들 급식비, 마스크 지원 ②볼리비아 아이들 급식비 지원 ③캄보디아 돈보스코센터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①에디오피아 3,000,000원(1회) ②볼리비아 5,000,000원(1회) ③캄보디아 10,000,000원(1회) 합계: 18,000,000원	주임신부님의 추천
3	관평동	①몽골 항올성당 ②브라질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③페루 (대전교구 선교지)	①몽골 항올성당 선교지 지원 ②브라질 현금지원 ③페루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현지 학생들 학용품 등 지원	①몽골 항올 905,000원(1회) ②브라질 300,000원(1회) ③페루 약 4,800,000원 (매 달 20만원씩 약 2년) 합계: 약 6,005,000원	선교지의 요청 및 수녀회의 요청
4	반석동	①케냐 ②탄자니아 ③네팔 ④몽골 (올마이키즈)	현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원 (올마이키즈)	17,700,000원 (매 월 30만원씩 4년 11개월)	인터넷 검색
5	웅천	①칠레 선교 (김동진 신부 선교지)	개인후원금 및 2차봉헌금 합산 현금지원	4,488,000원(1회)	주임신부님의 추천
6	내동	①이탈리아 국제카리타스 ②베트남 성당 성전 건립 ③몽골 항올성당	본당 모금활동을 통한 현금지원	①이탈리아 국제카리타스 2,002,023원 ②베트남 성당 성전건립 약 15,000,000원 ③몽골 항올성당 4,000,000원 합계: 21,002,023원	주임신부님의 추천

번호	본당	지원 국가 및 단체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및 횟수	지원 경로
7	판암동	①몽골선교 ②페루선교 ③몽골사제 후원	현금지원	8,500,000원(총4회)	-
8	천안 신방동	①남수단 살레시오회	현금지원	9,350,000원(총2회)	아는 수도회를 통해서
9	하기동	①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도미니코 수녀회 활동지역	빈민가정, 후원아동을 위한 방문봉사활동, 1대1 결연 장학금 지원, 현금, 생필품, 식량 지원	월 970,000원씩 지속 중 합계: 88,270,000원	청소년사목국 피앗 활동을 통한 추천
10	자양동	①케냐 나이로비 툿찡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	어려운 주민을 위한 의약품 및 식량, 생필품 구입비	약 50,000,000원 (연 1만달러씩 5년)	소속 수도회 수도자가 본당 신부님께 선교지 지원 요청
11	세종 성요한	①동티모르 순교복자수녀회 ②몽골 항올 ③잠비아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솔웨지교구 성 도미니코 중·고등학교	①동티모르 유치원건립 지원 ②몽골 항올 주교좌 성당 영상장비 구입비 지정 기탁 ③잠비아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성 도미니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지정 기탁	①동티모르 20,000,000원(1회) ②몽골항올 12,810,000원(1회) ③잠비아 14,800,000원(1회) 합계: 47,610,000원	주임신부님의 추천
12	거룩한 말씀의회	①필리핀 ②네팔 ③중국 ④북한 선교지(분원)	파견수도자, 사도직 기숙사, 병원, 교육비 등 지원	2,700,000,000원 (10년간)	거룩한 말씀의 회 선교지 분원
13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①잠비아 프란치스코 수도회	잠비아 사제양성, 본당 신축, 공소 보수공사, 장학금지원, 학교건축, 생필품, 학용품, 현금 지원 등	800,000,000원 (21년 9개월간)	잠비아 현지 교구 및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의 요청
14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①베트남 ②미얀마 ③말레이시아 ④태국	난민 지원,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위한 현금, 생필품, 식료품, 학용품, 장학금 지원 등	미기입	파견된 수녀님들의 요청
15	한국순교복자수녀회	①동티모르 ②필리핀 면형 공동체	①동티모르: 차량지원, 생필품, 의약품, 도서 및 학용품, 밀크맨(우유), 사랑의 집짓기,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②필리핀: 직업기술 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식사 및 우유 지원, 장학금, 공부방 운영, 의료보건위생 코로나 긴급구호 지원	①동티모르 78,400,000원(4년6개월간) ②필리핀 102,000,000원(15년 7개월) 합계:180,400,000원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선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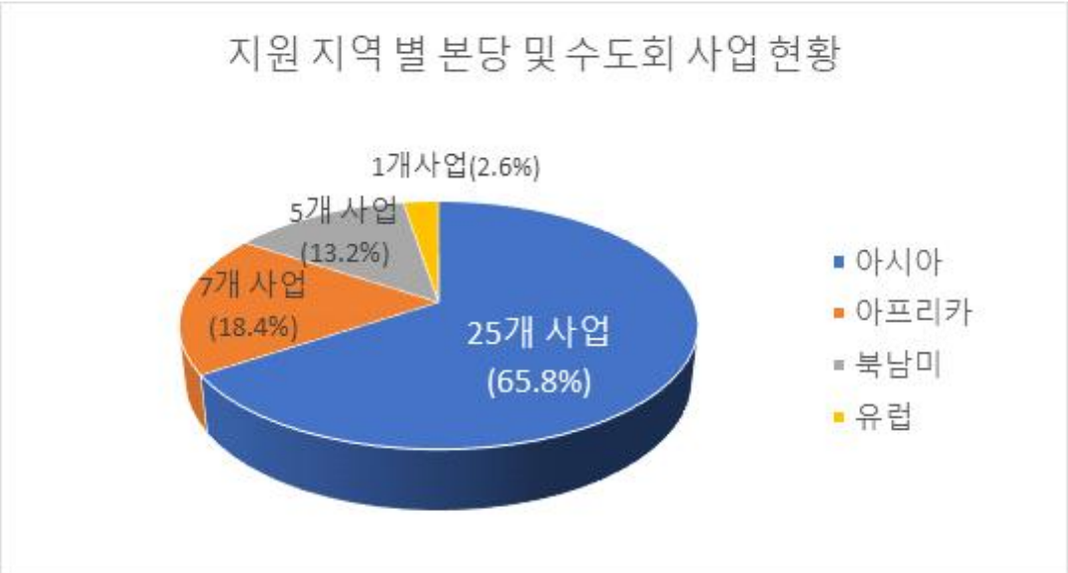
지원시 어려웠던 점	• 천안 불당동 -연락과 송금절차가 어려움 • 반석동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자양동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 못함이 아쉬움. • 거룩한 말씀의 회 -수도회의 카리스마인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 후원자들을 지속적으로 독려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낙후된 지역이다보니 재정사용의 근거를 남기는 일도 쉽지 않았음. -교육의 부재로 식민지 생활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한 나머지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주민들이 건설적 삶에 대한 의지나 희망이 없어 어려움이 컸음. -학교 건축이나 사제 양성에 들어가는 학비 등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컸음.
기타 본부에 하고 싶은 말	• 노은동 -다양한 해외지원 발굴과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 천안 불당동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면 좋겠음. 성당은 전문 지원 기관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음. • 자양동 -교구 차원에서 상황을 잘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에 관심을 주었으면 함. • 거룩한 말씀의 회 -수도회 사업 특성상 국제협력(언어, 행정) 인원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였으면 함.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로부터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기본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전담신부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

표1. 대전교구 본당·수도회 지원사업 수 및 총액 (~2021)

지원 사업 수	38개 사업(중복국가/단체 포함)
지원 총액	약 4,014,525,023원

표2. 지원 지역 별 대전교구 본당·수도회 지원사업 현황 (~2021)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유럽	합계
25개 사업(65.8%)	7개 사업(18.4%)	5개 사업(13.2%)	1개 사업 (2.6%)	38개 사업(100%)



❍ 표1. 대전교구 본당·수도회 지원사업 수 및 총액 (~2021)을 살펴보면, 대전교구 내 본당 및 수도회에서 진행한 해외지원사업의 수는 총 38개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표2. 지원 지역 별 대전교구 본당· 수도회 지원사업 현황 (~2021)을 보면 대전교구 내 본당 및 수도회의 해외지원은 주로 아시아 (25개 사업(65.8%))에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프리카(7개 사업(18.4%)), 북남미(5개 사업(13.2%)), 유럽 (1개 사업(2.6%) 순이었다.

첨부1. 연도별 상세 지원내역

• 2010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5~12월(8개월)	24,000,000원	툽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5~12월(8개월)	32,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및 식료품 지원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0.10~2011.3 (6개월분)	12,500달러 (14,326,032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총 지원금			70,326,032원	

• 2011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12개월)	36,000,000원	툽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12개월)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및 식료품 지원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1.4~2011.9 (6개월분)	12,500달러 (13,595,750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총 지원금			97,595,750원	

• 2012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12개월)	48,000,000원	툽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12개월)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및 식료품 지원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2.2 2012.8 (상·하반기 각 1회)	12,500달러 (13,998,750원) 12,500달러 (14,184,500원) =>25,000달러 (28,183,250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총 지원금			124,183,250원	

• 2013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12개월)	48,000,000원	툽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12개월)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식료품 지원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3.5 2013.9 (상·하반기 각 1회)	12,500달러 (13,688,750원) 12,999.53달러 (14,125,289원) =>25,000달러 (27,814,039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2013.9 대철중 바지회 모금액 포함 지원)
총 지원금			123,814,039원	

• 2014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12개월)	48,000,000원	톱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12개월)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및 식료품 지원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4.5 2014.8 (상·하반기 각 1회)	12,500달러 (12,812,250원) 12,500달러 (12,988,750원) =>25,000달러 (25,801,000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4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4.5 (대화동성당 기탁)	975.62달러 (999,990원)	
총 지원금			122,800,990원	

• 2015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12개월)	48,000,000원	톱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12개월)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3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5.5 2015.8 (상·하반기 각 1회)	12,500달러 (13,647,500원) 12,500달러 (14,960,000원) =>25,000달러 (28,607,500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4	인도 코타르 교구	2015.12	15,000달러 (17,710,548원)	쓰나미 재해를 입은 해안가 마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 요한 예술과학대학생들을 위한 중식(무료급식) 지원
총 지원금			142,318,048원	

• 2016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남수단 살레시오회 선교국	2016.1 (노은동성당 연계지원)	4,000,000원	남수단 돈보스코 마을 학교 100개짓기 프로젝트 지원
2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1~12월 (12개월, 월 1회)	48,000,000원	톱 아이막 지역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우유, 의약품 지원
3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1~12월 (12개월, 월 1회)	48,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4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6.5, 2016.12 (상·하반기 각 1회)	25,000달러 (29,836,108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및 다양한 양성프로그램 (인권, 건강과 위생, 직업훈련, 모임활동) 지원
5	인도 코타르 교구	2016.6, 2016.12 (상·하반기 각 1회)	30,000달러 (35,794,874원)	성 요한 예술과학대학교 대학생들을 위한 중식(무료급식) 지원
총 지원금			165,630,982원	

• 2017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2017.1 2017.7	60,000,000원	지역의 공부방 운영, 존모뜨 지역 노인, 환자, 주민들의 운동 치료실 운영, 컴퓨터 교육, 공동 사워장 운영, 보건위생, 기초 생활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2017.2 2017.7	60,000,000원	지역 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3	시리아	2017.2	1,200,000원	'HELP SYRIA' 시리아 난민 지원
4	우간다	2017.3	3,000달러 (3,471,600원)	아동 교육 지원, 길거리 청소년 및 여성 지원
5	에콰도르 마찰라 교구	2017.5, 2012.9 (상·하반기 각 1회)	25,000달러 (28,533,750원)	마찰라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식료품 및 다양한 양성프로그램 (인권, 건강과 위생, 직업훈련, 모임활동) 지원
6	인도 코타르 교구	2017.5 2017.9 (상·하반기 각 1회)	30,000달러 (34,246,500원)	쓰나미 재해를 입은 해안가 마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 요한 예술과학대학교 대학생들을 위한 중식(무료급식) 지원
총 지원금			187,451,850원	

• 2018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2018.6	20,000,000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가정돌봄, 환자쉼터, 공용샤워장, 쓰레기장 급식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2018.6	25,000,000원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급식, 교복, 외국어교육 및 장학사업, 기초수급자 정기지원, 알콜중독자 재활 사업, 생필품 등 기초생활 지원, 겨울 땔감지원
3	케냐 아기천사고아원	2018.2	6,000달러 (6,537,600원)	아기천사 고아원 아이들 교육, 보건위생, 경제적 자립, 지역공동체발전 지원
4	우간다 커뮤니티케어센터	2018.2	4,000달러 (4,359,600원)	아동 교육 지원, 기초생계, 길거리 청소년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
5	파키스탄 주교 요한요셉 남중학교	2018.2	10,000달러 (10,745,200원)	아동노동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숙식, 지역공동체 발전 지원
총 지원금			66,642,400원	

• 2019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2019.2 2019.12	6,375,081원, 12,604,444원 (18,979,525원)	지역의 소외 빈민층 독거노인, 치료 및 거주가 필요한 유목민, 극빈자, 영유아 등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료품, 환자쉼터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2019.2 2019.11	20,000,000원, 7,000,000원 (27,000,000원)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급식, 교복, 외국어교육 및 장학사업, 기초수급자 정기지원, 알콜중독자 재활사업, 생필품 등 기초생활지원, 겨울 땔감지원
3	케냐 아기천사고아원	2019.2	9,200달러 (10,382,200원)	아기천사 고아원 아이들 교육, 보건위생, 여성의 경제적 자립(직업훈련), 지역공동체발전 지원
4	우간다 커뮤니티케어센터	2019.2	9,600달러 (10,833,600원)	아동 교육 지원, 기초생계, 길거리 청소년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
5	파키스탄 주교 요한요셉 남중학교	2019.5	10,000달러 (12,008,032원)	아동노동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숙식, 지역공동체 발전 지원
6	동티모르 레뀌도에 복자도서관	2019.10	14,163달러 (16,923,870원)	산간지역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 및 도서 구입 지원
총 지원금			96,127,227원	

• 2020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2020.3 2020.11	14,746,200원, 11,329,824원 (26,076,024원)	코로나19 긴급 식료품 지원, 쓰레기장 노동자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미지원		-
3	케냐 아기천사고아원	2020.3	9,270달러 (11,056,329원)	아기천사 고아원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간 만들기 지원, 아이들의 가족으로의 재통합 지원, 아이들의 초등 교육 지원, 코로나19 긴급 생필품 지원
4	우간다 커뮤니타케어센터	2020.3	9,938달러 (12,591,446원)	아동 교육 지원, 기초생계, 길거리 청소년 및 여성역량강화 지원
5	파키스탄 주교 요한요셉 남중학교	2020.3	10,000달러 (11,927,000원)	아동노동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숙식, 지역 공동체 발전 지원
6	동티모르 레쿠도에 복자도서관	2020.3	17,050달러 (21,580,185원)	산간지역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자도서관 도서 구입, 주말 공부방, 사업 지원
7	캄보디아 뽀이뻿 돈보스코센터	2020.3 *매칭지원	20,000,000원	초등학생 급식 지원 *천안불당동성당 10,000,000원 + 본부10,000,000원
총 지원금			103,230,984원	

• 2021년

	국가 및 지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내용
1	몽골 항올 성모승천성당	2021.3 2021.9	13,143,000원, 1,473,820원 (14,616,820원)	코로나19로 긴급 식료품 지원, 쓰레기장 무료급식 및 의료 지원, 2개 공부방 운영 지원
2	몽골 바양허쇼 가나안복지센터	미지원		-
3	케냐 아기천사고 아원	2021.3	7,164.39달러 (8,276,303원)	아기천사 고아원 아이들 교육, 가족으로의 재통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4	우간다 커뮤니타케어센터	2021.3	9,997.58달러 (11,544,205원)	지역의 아동 교육 지원, 기초생계, 길거리 청소년 및 여성 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 긴급 식료품, 위생용품 등 지원

5	파키스탄 주교 요한요셉 남중학교	2021.3	10,000달러 (11,554,000원)	아동노동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숙식, 코로나19 긴급 식료품 지원, 지역공동체 발전 지원
6	동티모르 복자유치원	2021.5 *매칭지원	30,000,000원	동티모르 유치원 건립지원 세종성요한성당 20,000,000원 본부 10,000,000원
7	캄보디아 뽀이뻿 돈보스코센터	2021.3	10,000,000원	돈보스코센터 초등학생 무료 급식 지원
8	몽골 항올 주교좌 성당	2021.5 (세종성요한성당 기탁)	12,810,000	세종 성요한 성당 지정 기탁 몽골 항올 주교좌 성당 영상장비 구입 지원
9	잠비아 성 도미니코 중·고등학교	2021.7 (세종성요한성당 기탁)	14,800,000원	세종 성요한 성당 지정 기탁 교육용 컴퓨터 구입 지원
10	인도네시아 세마랑 대교구	2021.10	7,487.42달러 (8,980,411원)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교육(학비,학용품,교복), 기초생계, 건강과 위생(마스크,손세정제)지원
총 지원금			122,581,739원	

총 해외지원(2010~2021년)	1,422,703,291원
연평균 해외지원	118,558,607원

모든형제들
(FRATELLI
TUTTI)

2 세 션 * 발제문

대전교구 국제협력 정체성과 방향을 논하다.

교회 문헌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에 기반한 대전교구 국제협력의 정체성과 방향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이문동본당 주임,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영문판 번역)

2 세션2, 발제문

대전 교구의 국제협력을 생각하면서

박동호 안드레아신부
(서울대교구 이문동본당 주임)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영문판 번역)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인류의 빛」제1항)

편의상,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은 '하느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실성'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루카 10, 27)하라는 계명의 실천으로, 또는 '신앙고백', '그리스도 신비의 거행'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 2, 4편 참조)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줄여서 '경신례(敬神禮)'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하느님의 말씀」(1965)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거룩한 공의회」(1962)는 이를 밝힌 헌장들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루는 일치'는 '이웃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루카 10, 27)하라는 계명의 실천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1965)은 이를 밝힌 또 다른 헌장이다.

표현(表現, expression)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사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표징(表徵, sign)'이란 용어 때문이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경신의 예'와 '이웃 사랑'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다. 교회는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충실성을 완전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성사'인 까닭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삶을 통해 인류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도구(道具)'가 된다.

여기서 두 가지의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경신의 예'와 '이웃 사랑'을 분리하려는 유혹이다. 유혹은 달콤하다. '경신의 예'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은 현실에서 온전한 헌신(獻身)을 요구하기에 응답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며 고난이다. 진정한 '경신의 예'는 이웃 사랑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좁은 문' 대신에 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이유다. 둘째 '도구'를 가치중립적으로 보려는 유혹이다. 하지만 지상의 어떤 도구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도구가 '용처(用處)'에 맞게 활용되면 그것으로 '이기(利器)'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거나', 최악의 경우, '흉기(凶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과 빛과 누룩이 그렇다.

교회 생활을 형식적인 '경신례'에 제한함으로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을 가려버릴 그 위험, 도구로서의 교회가 그 '용처'와 '목적(目的)'을 망각하여 자족(自足)할 그 위험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힘들지만 고결한 교회의 그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교회는 오늘날 인류가 제기하는 고뇌에 찬 문제들에 대하여 인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들을 복음에서 끌어낸 빛으로 비추어주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그 창립자에게서 받은 구원의 힘을 인류에게 풍부히 제공함으로써, 그 백성이 들어 있는 온 인류 가족을 향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 가장 응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진정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인간 사회는 쇄신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표징을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3-4항)

사목 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서론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제1장 인간의 존엄
  제2장 인간 공동체
  제3장 전 세계의 인간 활동 (*현세 사물의 정당한 자율성)
  제4장 현대 세계 안에 교회의 임무
제2부 몇 가지 긴급 과제
  제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제2장 문화 발전의 촉진
  제3장 경제 사회 생활
  제4장 정치 공동체의 생활
  제5장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맺음말

3. 이 사목 헌장은, 30여 년 후 『가톨릭교회 교리서』((1997) 제3편 '그리스인의 삶'에 폭넓게 반영되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1장 인간의 존엄성
  제2장 인류 공동체
  제3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2부 십계명
  제1장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제2장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4. 몇 해 후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간추린 사회교리』(2004)를 펴냈다. 반세기 전 공의회가 식별한 "인류가 제기하는 고뇌에 찬 문제들"(사목 헌장 3항)을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진리와 관련된 것이다. 자연과 기술과 도덕 사이의 경계와 관계에서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인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관하여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책임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방식, 도덕적 선택, 문화, 소속 종교, 인간과 사회 발전에 대한 철학 등 모든 측면에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세계화로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운명이 달린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단순한 경제 세계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오하다."(『간추린 사회교리』, 16항) 문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문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본주의
제1부
  제1장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
  제2장 교회의 사명과 사회 교리
  제3장 인간과 인권
  제4장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
제2부
  제5장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
  제6장 인간 노동
  제7장 경제 생활
  제8장 정치 공동체
  제9장 국제 공동체
  제10장 환경 보호
  제11장 평화 증진
제3부
  제12장 사회 교리와 교회의 활동
결론 사랑의 문명화를 위하여

5.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재위 1년 만에 교회의 쇄신을 호소하면서, 사도권고 『복음의 기쁨』(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에 관하여)을 발표하였다. 이 문헌의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에서 그는 『간추린 사회교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근심스러운 사회 문제들을 모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이미 제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권고는 사회 문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간추린 사회교리』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여러 주제를 성찰하기 위한 알맞은 도구들은 이 『간추린 사회교리』 안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추린 『간추린 사회교리』를 연구하고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저는 이 시대의 역사에서 제가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두 현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첫째 현안은 사회 안에 약자들을 포용하는 문제이며, 둘째 현안은 평화 및 평화의 실현을 위한 사회 차원의 대화 문제입니다."(『복음의 기쁨』 184-85항)

『복음의 기쁨』 제2장은 '위기에 처한 공동의 책임(헌신)'을 다루었는데, 특히 '오늘날 세상이 제기하는 도전들'로 교황은 다음의 주제들을 꼽았다.

사람을 배제하는 경제를 거부합시다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합시다
[사람과 사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지배하는 금융 체제를 거부합니다
폭력을 불러오는 불평등을 거부합시다
몇몇 문화적 도전들
도전받는 신앙의 토착화
도전하는 도시문화

6.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프란치스코는 안으로는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밖으로는 "오늘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근심스러운 사회 문제들"(『복음의 기쁨』 184-85항)을 다룸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들어 있는 온 인류 가족을 향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사목 헌장 3항)을 드러내려 한다. 2년 후 그는 사회 회칙 『찬미 받으소서』(우리의 공동 가정을 돌보는 삶에 관하여, 2015) 제1장에서 '고뇌에 찬 문제들'을 "50여 년 전" '핵 재앙'에 비견하면서 "'우리의 공동 가정에 관하여' 모든 사람과 나눌 대화"(『찬미 받으소서』, 3항)의 길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 제1장 '오늘날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I. 오염과 기후변화
II. 물과 관련한 현안
III. 생물 다양성의 상실
IV. 인간 삶의 질 추락과 사회의 붕괴
V.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
VI. 빈약한 응답들
VII. 의견의 다양함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일부에서는 '환경회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른바 축소 또는 환원주의(reductionism)를 경계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말 어법에서 '환경'은 대개 '자연환경'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앞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I, II, III만을 성찰했다면 이른바 '자연환경'에 관한 회칙이라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IV, V, VI, VII은 바로 '인간 환경'과 '사회환경'의 문제다. 회칙은 창조물(creation, I, II, III)과 '인간'과 '사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하느님을 향해 진보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사람과 사회에 그 상호 책임 있는 돌봄을 제안하고 있다.

7.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사회 회칙 『모든 형제』(형제 관계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를 발표했는데, 제1장은 "우리 세계 안에서 보편적 형제 관계의 발전(사회적 우애)을 가로막는 몇몇 추세들"을 숙고하는데, 그 제목은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로서,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을 비유적이지만 호소력 있게 소개한다. 그 목차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산이 부수어진 꿈들
  역사의식의 종말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
  "쓰고 버리는" 세계
  불충분하게 보편적인 인권들
  갈등(충돌)과 두려움
공유의 로드맵이 부재한 세계화와 진보
역사 안의 팬데믹과 다른 재난들
국경선 위에 부재한 인간의 존엄
커뮤니케이션의 환상
  파렴치한 침범
  지혜가 없는 정보
굴종과 자기 경멸의 형태들
희망

8. 사회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사람과 사회에 창조물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을 호소했다면, 회칙 『모든 형제』는 암운들 사이로 비추는 빛으로서 '형제 관계'와 '사회적 우애'를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말 번역으로 채택한 '형제애'는 문맥에 따라 '형제 관계' 또는 같은 '혈육'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본적으로 인간 실존과 그 삶은 '너'와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문헌은 문화와 집단,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에도 적용하여 이해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본래 개방의 '형제 관계'였는데, 그 관계들이 어지러워진 형국을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로 기술한 것이다(관계들의 결렬로서의 죄와 폐쇄(소외와 고립), 죄와 폐쇄가 가져오는 어둠과 죽음).

9. 회칙은 '신앙의 빛'의 관점에서, 그 형제 관계의 극단적 파괴를 '카인과 아벨'의 관계로, 왜곡된 근대의 인류가 시도하는 하느님과의 결별(절대 진리와 사회의 기본 원리들 부정)을 '바벨탑'의 구

축으로 파악하면서, 그 극복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제시한다(제2장). 더 나아가 '이성의 빛'의 관점에서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기'와 '전체 세계에 열려 있는 정신'을 제시함으로써(제3장, 제4장), 신앙과 이성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류가 나아갈 길, '진리의 빛'을 제시하려고 한다.

회칙은 아무런 연고(緣故)도 없는 사마리아인과 그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길가에 버려진) 유대인 사이에 가로놓인 것과 같은, 오늘날 철옹성의 장벽을 무너뜨릴 기세로서의 '보편적 형제 관계(형제애)'(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권) 회복을, 또 그 관계를 올바로 드러내는 실천적 양식으로서의 '사회적 우애'(인류 공동체와 보편적 공동선)' 실현을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빛으로 제안한 것이다. 보편적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우애를 실현하려는 목적의 모든 인간 활동(사목 헌장 제1부 제3장 '전 세계의 인간 활동'(* 현세 사물의 정당한 자율성) 참조) 가운데 회칙은 특히 정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
인간과 사회(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경제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그것이 '인간의 존엄(보편적 형제 관계 구축)과 공동선(사회적 우애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이 되려면 사회적 가치들인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함양하는 '건전한 문화',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카리타스의 기세가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진정한 만남과 대화로 자라나는 새로운 문화를 토대로 해야 하며(제6장 '세계 안의 대화와 우애. 제7장 치유와 새로우진 만남의 경로들), 그 여정에 그리스도 교회는 기꺼이 길을 나선다(제8장 우리 세계에서 형제애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들).

10.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에서 교회의 공적 임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안한다.

"교회는 공동선(the common good, *사회적 우애 social friendship)에 관한 부단한 주의(注意)와 온전한 인간 발전(the integral human development, *인간 존엄과 형제 관계 human dignity, fraternity)에 관한 관심을 수반하는 삶 그 자체의 정치적 차원을 단념할 수 없습니다. … 교회는 자신을 가족들 가운데 한 가족으로 내놓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 가족,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증언하는 데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열려 있는 가족, 주님께 대한 또 그분께서 우선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열려 있는 가족, 문들이 열려 있는 한 가정,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문들이 열려 있는 한 가정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 가정을 떠나고 또 예배 장소들에서 길을 나서는 교회, 그 성물 안치소에서 길을 나서는 교회, 삶에 동반하기 위해, 희망을 떠받치기 위해, 일치의 표지가 되기 위해 … 다리를 놓기 위해, 벽들을 허물기 위해, 화해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 길을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려 합니다."(『모든 형제』, 276항, 괄호 안 *은 필자의 덧붙임)

(하느님의) '카리타스'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카리타스는 "언제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먼저 다가가는 선택적 사랑"(회칙 187항)이다. 그 카리타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들을 포용하거나 배제하는 그 결정은 어떤 경제·정치·사회·종교적 기획사업이든 다 그 사업을 심리(심판)하는 기준(69항)"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11.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사인 이 땅의 교회가, 또 카리타스로 변형된 시선을 두어야 할 곳, 발걸음을 옮겨야 할 그 목적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회들, 지역들과 나라들을, 더 나아가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그 범주에 포괄했듯이, 창조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의 사막화가 인성과 사회의 사막화를 반영한 것임을, 종의 멸절로 겪는 고통이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겪는 아픔과 같음을 본다. 그는 근대의 소비주의와 상대주의, 무책임과 무관심에 기반한 소수의 번영과 절대다수가 겪는 비인간적 고통의 상황 사이의 그 격차를 '치욕'으로 느낀다.

12.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토록 심각한 '불균형'의 상황, 거기에서 유래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라는 모순의 상황이 저절로 발생한 것도, 그렇다고 숙명으로 예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교황은 물론 '인간(근대의 일탈한 인간중심주의-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고)'에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세계 체계'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에서는 일차원적이며 획일적인 테크노크라틱 패러다임(technocratic paradigm)을 인식론적 패러다임(인간관과 세계관)으로 전용한 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곧 근대의 과학 기술이 인류에 부여한 힘(power)이 건전치 못한 재배 권력에의 욕망(민중적 정치 지도력의 퇴락)과 즉각적이며 실용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제모델 및 금융체계, 또 그 모델과 체계가 강요하는 이른바 문화 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취약한' 사람과 문화, 취약한 사회와 창조 세계를 낳아 무자비한 고통을 안기며, 심지어 내버리기까지 한다고 성찰한다. '생태 차원의 전환'을 간절히 요청하는 까닭이다. 이는 앞에서 『간추린 사회교리』가 주목하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 세 가지가, 인간 존재에 관한 진리의 문제,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에 관한 문제, 세계화의 문제가 서로 결합하여 있으므로 그 해결의 접근법이나 행동 노선 역시 통합의 자세가 요구되며 그 때문에 성실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13. 회칙 『모든 형제』는 '연대의 가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연대는 인격적 전환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덕목이며 사회적 태도로서, 교육과 양성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투신(책임)을 요청합니다. … 모든 일이 분해되고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려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무름(부서지기 쉬움)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자각)에서 생겨난 그 "단단함(고형성, 固形性)"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연대는 구체적인 수고(공헌)에서 나타납니다. 그 수고는 다른 이들을 돌보려는 노력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는 대부분 취약함을 돌본다는 것, 우리 가족들, 우리 사회, 우리 인민 가운데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수고를 바치는 가운데, 개인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구체적인 시선 앞에서, 자신들만의 바람과 염원, 자신들만의 권력 추구를 제쳐두는 법을 익힙니다. 수고는 언제나 취약한 구성원들의 얼굴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살을 만지고, 그들과의 밀착을 느끼며, 심지어 어떤 경우들에는, 그 밀착을 '견디면서' 그들을 도우려 합니다. 수고는 절대로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념을 접대하지 않고, 인민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연대는 산발적인 관대함의 행동들에 관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공동체의 관점에서(공동체에 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모든 이의 삶이 소수(少數)에 의한 재화

의 할당(割當)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빈곤·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상대로, 노동·땅·주택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상대로, 사회적·노동의 권리들에 대한 부정(否定)을 상대로 항쟁(抗爭)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연대는 돈의 제국이 휘두른 파괴적 영향들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대는, 가장 심오한 그 의미로 이해할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을 바로 대중 운동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114-116항)

14.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교구(개별교회)의 국제협력과 방향을 모색한다. 왜 협력해야 하는가? 첫째, 아(我)는 타(他)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만 상호 발전하고 진보하며 하느님 안에서 함께 그 충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과 대화, 협력과 더 나아가 무상성이 없다면 '폐쇄 공간' 또는 '패거리 집단'이 되며, 그 안에는 '죽임'만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4년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에서 한국교회가 'another part of society'가 될 유혹에 빠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셋째, 교회는 성사로서 또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 들어있는 인류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이나 인종, 종교나 성과 같은 경계를 넘어선다. 넷째, 비록 개별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나 그 본성으로 보편(catholic)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연대는 정의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의 방향성은 앞에서 기술한 하느님 카리타스의 우선적(선택적) 사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느 곳을 향하는가? 카리타스로 고무된 이 땅의 교회는 길을 나서 언제나 그 발걸음을 이른바 '변두리'로 옮긴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복음의 기쁨』과 회칙 『모든 형제』를 통해, 하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울(인류의 일치를 도모할) 하나의 원리로서, 또 세상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하나의 원리로서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합니다'를 제시한다. 회칙 『모든 형제』의 제4장 '전체 세계에 열려 있는 마음(정신)'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국제협력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국경과 그 범위
호혜적 선물들
  풍성함을 가져오는 교류
  다른 이들(사람, 가족, 문화, 지역, 나라 …)에 열려 있는 무상성
지역(local)과 보편(universal)
  지역의 풍미
  보편적 지평
  우리 자신의 지역에서 시작하기

"어떤 경우든, 우리는 부단히 우리 지평들을 넓히고 또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더 큰(멋진) 선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평을 얼버무리거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출생지의 비옥한 땅과 역사 속으로 우리의 뿌리들을 더 깊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출생지는 하느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작은 규모로, 우리 자신의 인근에서, 그러면서도 더 큰 전망을 지니고 일할 수 있습니다. … 전체는 부분보다 중요합니다(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는 그 부분들의 총합보다 위대합니다."(145항)

15. 자연스럽게, 교구의 고유함(identity, 터)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와 그 존중이 또 무상으로 건넬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식별이 요구된다. 이때 회칙이 강조하는 사회교리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재화의 사회적 역할' 또는 '모든 지상 재화의 공동 목적 및 공동 사용권의 원리'에 관한 성찰이 그것이다.

"저로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적 재화의 권리가 절대적이며 불가침(不可侵)하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형태의 사적 재화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창조된 재화의 공동 사용의 원리는 "전체 윤리·사회 질서의 첫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하는 자연적이며 타고난 권리입니다. 인간들의 온전한 완성에 필수적인 재화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모든 권리는, 사적 재산의 권리든 다른 어떤 형태의 재산의 권리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 바오로 6세의 말을 빌리면, "절대로 [이 공동 사용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 행사를 활발하게 도와야 합니다." 사적 재산의 권리는, 창조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에서 파생된 권리들 가운데 하나로, 부차적(副次的)인 자연권으로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활동들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결과들만을 낳습니다."(120항)

위의 원리에 관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Saint John Chrysostom)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가난한 이들과 우리의 부(富)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를 강탈하여, 그들의 생계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도 합니다."(119항)

교회가 'another part of society'가 되면, 그 소유 재화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건네더라도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할 것이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표징이며 도구다.

"우리는 참된 '대화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을, 중개자(仲介者, intermediaries)들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중재자(仲裁者, authentic mediators)들로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개자들은 누구에게나 할인(割引)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중재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소비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힘을 다 쓰면서도, 유일한 보상이 평화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각자는, 쪼개지 않고 모음으로써, 증오의 불길에 매달리지 않고 그 불길을 진화(鎭火)함으로써, 새로운 벽들을 세우지 않고 대화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평화의 장인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284항)

16.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향한 충실함과 울타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보편적 형제 관계와 사회적 우애의 실현)에의 헌신 사이의 관계를 두고 회칙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함으로써 이를 적확(的確)하게 표현했습니다. 구제주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알몸일 때 그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그 알몸이 추위에 마비되었는데도, 비단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그 알몸을 공경하지 마십시오."(74항)
성인의 가르침에 덧붙여 교황은 "역설적이게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이들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할 수"(74항) 있다고 진단함으로써 분발을 촉구한다.

모든형제들
(FRATELLI
TUTTI)

*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노승환 요셉 신부
(대전교구 사회복지국장)

토론 1. 국제협력의 동향 및 선도적 국제협력의 방향
박진솔 아녜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팀장)

토론 2. 본당 해외지원 확장과 교구와의 연대 가능성
조수정 데레사
(대전교구 사회복지분과협의회 회장)

토론 3.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 I
홍정수 베드로 신부
(몽골 항올 해외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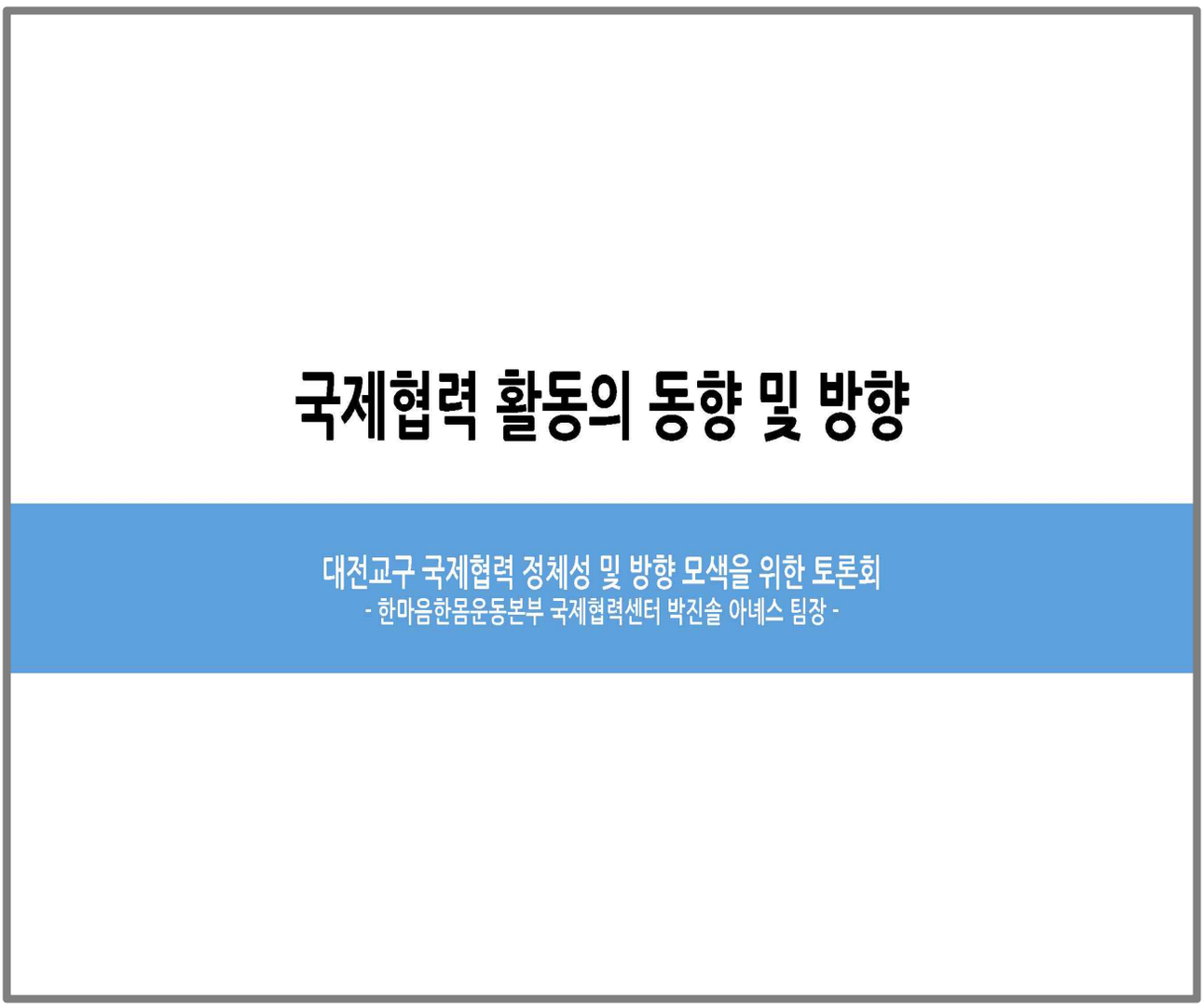
토론 4.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 II
김영나 효주아녜스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동티모르 해외선교)

토론 5. 국제협력에 관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역할
윤영중 필립보 신부
(대전교구 성소국장/본부 운영위원)

1 토론문

국제협력 활동의 동향 및 방향

박진솔 아녜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팀장)



국제협력 활동의 동향 및 방향

[직시-관찰] BC & AC

[직시-관찰] 사업현장 및 기관의 활동 변화

- 사업국가(지역)의 출입국 및 이동 제한 (Lockdown 등)
- 감염 예방을 위한 해당 정부 정책에 따른 (대면)사업 활동 중단과 변경
- 사업수행인력 철수 및 활동 제한 등 현장 사업 고충
- 팬데믹과 더불어 해당 국가 내 정치사회적 변동 및 어려움 발생 (미얀마 등)

[직시-관찰] 한국 정부의 ODA - 전반 원조 현황

2019			2020		
1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플...	103	1	COVID-19	356
2	국도 건설(voluntary code)	97	2	국도 건설(voluntary code)	97
3	행정비용	87	3	행정비용	94
4	전문대,대학(원) 교육	82	4	전문대,대학(원) 교육	70
5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69	5	의료서비스	60
6	철도운송	66	6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플...	60
7	의료서비스	61	7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54
8	긴급식량원조	54	8	긴급식량원조	49
9	농업 개발	49	9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41
10	전력송전/배전	44	10	철도운송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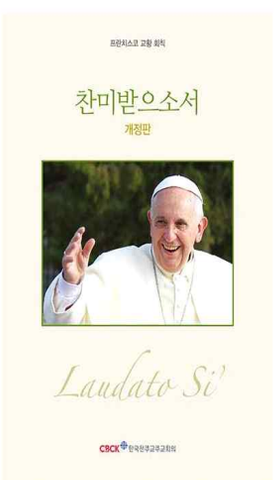
Covid 19 대응 및 긴급 구호 활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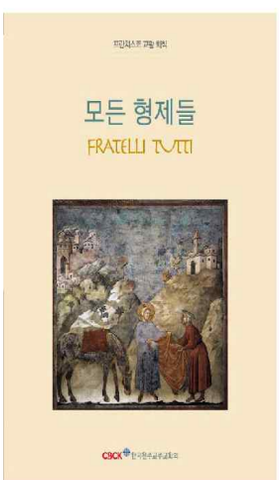
식수, 의료, 식량 원조 활동의 필요성 계속

[선택-판단] 기조 발제 자료 참조 (Fr.박동호 안드레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사목헌장 → 가톨릭교회 교리서 → 간추린 사회 교리 → 복음의 기쁨 → 찬미받으소서 → 모든 형제들

[선택-판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재확인





- 하느님의 창조물, **'공동의 집 - 지구 (생태 및 사회환경)'에 대한 돌봄**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 사랑 실천-연대를 통한 보편적 형제 관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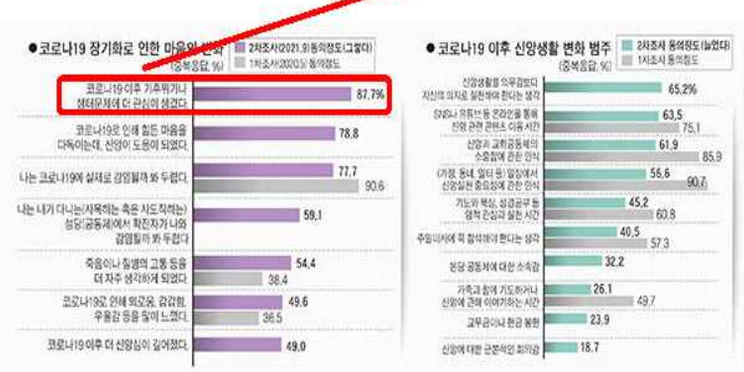
[행동-실천] 가톨릭교회-국제협력 기관의 역할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
(가톨릭신문사-우리신학연구소)

- 나는 가톨릭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7.2%)
- 나는 세상 속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93.6%)

[행동-실천] 가톨릭교회-국제협력 기관의 역할

코로나19 이후 생태문제에 더 관심이 생겼다. (87.7%)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 (가톨릭신문사-우리신학연구소)

[행동-실천] '세상을 향한 교회 ' 의 최일선

국제개발협력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 아동 및 청소년 교육
- 마을 공동체의 자립
- **위생 및 보건의료**

긴급구호 - 인도적 지원

- **식량**
- **물과 위생**
- 복구 및 사회재건

With Covid19 - 현지화(Localization)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 협력과 연대 강화

'공동의 집' - 지구의 '모든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대전교구 국제협력 정체성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박진솔 아네스 팀장 -

2 토론문

본당 해외지원 확장과 교구와의 연대성

조수정 데레사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협의회 회장)

1.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의 해외지원 현황

대전교구 14개 지구, 140여개 본당 중 사회복지분과를 통해 해외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본당은 매우 소수(10개미만, 대부분 대전북부지구 소속 본당들)이다. 대부분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수도회, 선교사, 혹은 신부님들의 요청을 받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타교구의 해외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본당도 있다. 그러나 지원요청 내용과 과정, 현지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본당 신자들과 공유(본당 주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하는 본당은 겨우 1~2곳 정도로 파악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해외지원 사업을 펼치는 대전 하기동 성당 이야길 하고자 한다. 캄보디아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돌보는 지역에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기 위해 신자들이 가족단위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맺은 후, 9년째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지를 방문하여(격년으로)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만남과 봉사를 통해 쌓아올린 신뢰와 연대감은 앞으로도 이 봉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훌륭한 지원사업 모범 사례이지만 다른 본당들이 따라 하기는 쉽지 않다.

1993년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해외원조주일'조차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수동적으로 교구협조에 따르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해외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본당들에 직접적 해외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 '우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벅차다.' 혹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가끔 우리 지역 '이주민'을 돕는 것이 해외원조라 생각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였다.

2.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의 해외지원 확장 가능성

겉보기엔 이렇게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는 해외원조의 불모지이지만, 시대적으로 해외지원 사업은 카리타스인에게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새로운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제규모 10위인 나라에 살고 있고, 교황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 지구촌 '모든 형제'에게 관심을 갖고 연대하길 촉구하신다.

각종 매체을 통해 수많은 NGO들의 모금활동을 접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해외원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는 분위기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신자들의 해외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촌 형제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걸까?

전세계 카리타스 조직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된 커다란 네트워크(NetWork)이다.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 또한 이 그물망의 일부이다.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그물망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수년전부터 본당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져왔고, 실제로 그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가구 재건을 위한 본당을 초월한 모금활동, 암환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마련을 위한 본당간의 협조, 노후주택의 주거개선사업 등이 있다. 이런 본당간 네트워크 사업의 경험을 해외지원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3. 본당사회복지분과와 교구와의 연대성

대부분의 본당은 매우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본당사회복지분과가 자발적으로 해외원조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본당 신자들은 도움이 절실한 '구체적인 사례(목표)'가 제시되는 경우, 놀라울 정도로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토고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자비의 딸 선교사의 요청이 있었고, 대전교구의 한 본당과 연결이 되었다. 교중미사 때 그 선교사가 직접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물탱크 설치를 위한 도움을 호소하였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 이상이 모금되었다. 구체적인 대상과 도와줘야할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걸 요청하는 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신자들은 얼마든지 그 부름에 화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해외선교 수도회나 신부님, 선교사들의 개인인맥에 의존한 해외원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알려진 본당에 집중적으로 요구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신자들의 피로감이 크다. (선교사의 호소에 감정적으로 움직여 후원을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또한 특정 선교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선교단체나 현지의 목소리를 전달 받아 본당 혹은 개인 후원자들에게 적당히 분산하여 연결해줄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Hub 역할을 할 기관이 대전교구(사회복지국 산하)에 필요하다. 개인인맥이 없는 선교단체들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들이 특정본당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도록 조율하며, 또한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담당할 전문기관을 운영한다면 해외지원에 대한 신자들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 더 교구(사회복지국)에 기대하는 것은 해외원조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이다.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 지구촌 형제들을 바라봐야 할 역사적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인종혐오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극복, 난민에 대한 이해, 세계기후 변화 등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지구시민교육 등이 필요하고, 해외는 아니지만 우리지역 이주민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고 그들 국가와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4. 맺음말

마더 데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냐고.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사회복지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지속성이다. 힘들게 몸을 혹사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면 봉사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봉사는 즐거워야하고 사랑을 담아야한다. 코로나 전에는 매주일 본당에 후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해치우 듯 모든 후원서에 사인을 하고나면, 은행에서 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내 마음은 담아 보내지 못했다.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야 하거늘...

카리타스 정신은 사랑을 담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구와 본당이 함께 연대하길 기대한다.

3 토론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 I

홍정수 베드로
(몽골 항올 해외선교)

1.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국제협력사업과 항올성모승천성당

몽골항올성모승천성당(이하 항올성당)은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로부터 국제협력사업 지원금을 받아 2010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전염병의 확산 이전에는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지원을 통해 3개의 공부방, 1개의 이동급식소, 1개의 공동 샤워장, 1개의 환자 숙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가난한 이웃들의 교육과 보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와 같은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받아 투브 아이막(도)의 종못드 공소는 아이막(도)로부터 정식 종교활동허가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의 국제협력사업

2020년 1월부터 몽골 정부는 코로나19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을 중지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로 성당에서의 모든 활동과 운영중이던 공부방, 샤워실, 급식소의 활동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식당과 서비스시설등의 이용 금지, 중국과의 교역 중단, 국제천연자원가격의 하락 등의 여파로 몽골 국내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이 떨어지는 건설, 서비스 종사자들이 대량으로 실직하는 하게 되면서, 생계를 위한 여유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일부 가정에서 기아의 위험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이 시기 여러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이 충분한 것이 아니었고,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20-30% 상승하는 등의 여러 상황으로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 항올성당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 문의하여 공부방 등의 사업을 위해 지급받았던

사업비 전체를 기아 위기에 놓인 가정들에 대해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하고 지원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총 50가정에 매월 10만 투그릭(한화 4만원)에 해당하는 기초 식료품(밀가루, 쌀, 기름, 고기, 면 등)을 직접 대량으로 구매하여 각 가정에 배달하고 각 가정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3. 몽골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의 전망

(1) 긴급 구호를 위한 예산 편성

몽골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확립된 교육, 복지 시스템 덕분에 수준은 낮지만 비교적 보편적인 교육과 의료,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아무런 도움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아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던지, 알콜 중독에 빠진 부모들의 폭력과 학대로 피난처가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생명 유지와 신변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경우, 여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자 중 하나가(보통은 남편) 집을 떠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장 필요한 음식과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즉시 개입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루카복음 10장 참조)

(2)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연대

온종일 노동하는데 시간을 써도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발전이나 개혁을 위한 참신한 시도들은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협력과 연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삶의 노력은 너무나 진지하고 처절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 교회의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시도하지 못하던 공동선을 위한 참신한 시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고, 훈련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NGO에서 여러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력단체의 활동에도 어떤 한계가 있음이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분명한 결과를 내는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분명한 사업들, 교육, 구호,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뿐,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연대하는 활동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 작은 교회로서 1,300명 정도의 교우 밖에 없는 몽골 가톨릭 교회는 성당의 문을 닫아 걸

어둘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마당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넓은 마당을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고, 성당의 교육관을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은 선교 지역의 작은 교회로서도 큰 기회가 됩니다.

몽골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성당은 넓은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이익을 얻으면서도 복음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익힐 수 있는 여러 활동들(환경, 교육, 복지 등)을 시행해볼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작은 규모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되,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험과 능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마침 : 몽골 사회와 가톨릭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외국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환영 받지 못합니다. 종교단체는 매년 종교활동을 위한 허가를 얻어야 하고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꼭 얻어야 하는 종교 비자 발급을 위해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금액의 2배를 매달 체류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1명의 외국인 선교사 마다 5명의 몽골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 명의 외국인 사제(선교사)는 7명의 몽골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감당해야만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당하면서도 몽골에서 활동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치우고, 공동선의 증진을 해치는 것에 맞서도록 불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 새로운 지혜와 힘을 받아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길 없는 곳에 새 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토론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교Ⅱ

김영나 효주아녜스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동티모르 해외선교)

선교지에서 누군가가 급히 한 번역본으로 교황회칙 ‘모든 형제들’을 처음 만나고,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읽기 시작했지만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글이었다. 바쁘신 중에도 정성 드려 써 주신 발제문 덕분에 회칙의 역사적 맥락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또한 특별히 주목하게 된 점은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는 단순한 자선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아니라 그에 우선하는 교회의 본성에서 나오는 공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한 아버지의 한 형제로서 협력과 연대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던 교회의 생활양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토론문은 그 예로서 동티모르 선교지에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와 함께 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변방으로 가야하는 마땅하고 옳은 방향 안에서 선교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필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도양 티모르섬 동부에 위치한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한 신생독립국으로 국토면적 14,954㎢, 인구 132만의 작은 섬나라이며, 인구의 97.57%가 가톨릭 신자이다. 또한1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평균연령 21세인 젊은 나라이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영아 사망률 7.5%, 문자 독해율 57%, 실업률 90%, 1인당 GDP 1,348$(2020년기준)의 최빈국에 속한다. 그 가운데 현재 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레쿼도에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지지 않은 산간지역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히 교육면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데, 3,000명가량 되는 초,중,고생들이 교과서도 없이 2-3시간 수업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교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업 없는 날이 많고, 학생들은 집안일과 농사로 자주 결석하고, 학교에 온다 해도 잡초 뽑기나 학교수리 같은 공동일에 동원되는 일이 많다. 가정환경 또한 열악한데, 일반적으로 7-10평되는 집에 부모님과 자녀들 5-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회는 2017년 동티모르 딜리교구에 진출하여 레쿼도에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유치원, 도서관, 중고생을 위한 여자 기숙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건물이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초기자본을 필요로 하기에 선 듯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와 연계되어 2019년 9월부터 이동도서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수녀원의 기도방과 침실 하나를 비워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도서관이 작은 대신 부산미바회에서 지원한 차량을 이용해 나모레수 도서관을 거점으로 월-목요일까지 4개지역 초, 중학교를 방문하는 이동도서관 형태를 선택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이동도서관과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어려워져 몇 달간 휴관하였다. 2021년에는 다행히 수녀원의 지원으로 30평 정도의 도서관이 나모레수 고등학교 앞에 지어져 도서관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사실 규모로만 보면 작은 마을 도서관 정도이지만 이곳은 그저 도서관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의 집’과 같다. 어느 집보다 넓고, 환하고, 쾌적하고, 심지어 학교에도 부족한 책상이 있다. 아이들은 책을 보지 않더라도 분위기 있게 앉아 머물며, 수업을 듣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밭에 가지 않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장을 열어주고 앎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곳이 되었다.

도서관의 이름은 ‘Rai Luan’이다. ‘넓은 땅’이라는 의미로, 처음 이 도서관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를 기억하며 ‘대전大田’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넓은 땅이며,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많지 않은 지원금이라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진 귀한 돈인지 잘 알고 있다. 국내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집인 같은 땅의 자녀로서 알지 못하는 형제를 향한 손 내밂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보편적 형제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도서관사업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방과 후 수업을 확대하고, 테툰어 번역 작업, 영화상영, 부모교육, 보건교육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업지원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운영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국제협력시 사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또한 새로운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실 이 지역 내에서는 자립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많은 재원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운영비가 안정되면 필요한 또 다른 일들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이 더 쉽게 소외되고, 학대당하며,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듯이 동티모르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약자들은 의료체계의 미비로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장애자나 환자의 경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어린시절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혼인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 삶이 착취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매우 시급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처음엔 시혜적 자선을 베풀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되는 상황들에 처하면서 협력자들을 만나고 현지인들과 연대한다. 그리고 점차 그들과 동화되고 일치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과는 좀 다른, 내가 그가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우애로 나아가며 우월감이 사라진 호혜적 관계에 들어간다. 개별교회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자신안에 머문다면 전체의 부분으로서 갖는 완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부분이 아닌 파편으로 존재할 것이다. 선교사는 개별교회의 가장 긴 팔이며 그 발이 닿는 곳 까지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다. “모든 이의 형제”가 되기를…

5 토론문

국제협력에 관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역할

윤영중 필립보 신부
(대전교구 성소국장/본부 운영위원)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지원사업의 역사

2010 ~ 2014년 :
초창기 대전 교구 사제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인 몽골과 에콰도르에 주로 급식, 식료품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 ~ 현재 :
지원이 인도, 시리아, 우간다, 파키스탄, 케냐, 동티모르, 캄보디아,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지원 내용도 식료품에서 난민 지원, 긴급 재해 지원, 교육 관련, 학교 짓기, 도서관, 컴퓨터, 인권, 아동, 여성, 건강, 직업 교육, 원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자 치료실, 기초 수급자 정기 지원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2014년 대화동 성당, 2016년 노은동 성당 이후 최근 2년 동안에 천안 불당동, 세종 성요한 성당이 기금을 마련하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또 함께 캄보디아, 동티모르, 몽골에 지원사업을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 **2010~2021년 총 해외지원: 1,422,703,291원**
◎ **연평균 해외지원: 118,558,607원**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지원사업의 특징

확장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지원 사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취지와 시작도 그러했듯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곳에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련된 기금을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구 사제들이 선교하는 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먹거리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앞서 언급한 대로 나라와 그 지원 사업 내용이 먹거리와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교육 등 그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 지원 규모가 연평균 1억 2천, 많게는 6000만원, 적게는 99만여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올 해에도 보면 본당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약점일 수 있지만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해외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지원 사업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 지원 사업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아주 많은 곳에 큰 돈이 보내지는 확장이 아니고, 또 우리가 돈을 보냈다는 뿌듯한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금처럼 관계성을 통해 지원할 곳을 선정하고 그곳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이 소규모의 구조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언

이번 토론회가 그 동안 10여년간 이어온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 지원 사업을 되돌아 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전교구의 해외지원 사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해외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구에 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가 우리 교구의 해외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를 통해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가 우리 교구 해외 지원 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소규모의 장점을 살려 기부자들이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금의 쓰임을 알고 이를 통해 지구촌 한 시민으로서의 마음도 자라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지난 10년간 4개의 본당이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와 함께 해외지원을 한 사례가 좀 더

많은 본당으로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인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 대륙에 고통받는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받고, 가난한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의 잦은 접촉과 왕래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해외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아시아 대륙에 그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시아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금의 지원을 넘어서 관계 맺음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는 사제들 안에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아시아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해봅니다.